

## 학사 김응조의 연시조 <학사삼곡>

정기선\*

- I. 서론
- II. 학사 김응조의 가문과 생애
- III. <학사삼곡>의 창작 시기와 문학적 특징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학사 김응조의 연시조 <학사삼곡>을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그의 문집인 『학사집』에 수록된 『학사삼곡서』를 통해 그가 창작한 시조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작품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근래 학사 종택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자료에서 김응조가 창작한 연시조 <학사삼곡>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가문과 생애를 검토한 결과, 김응조는 17세기 전반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관료와 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학사삼곡>이 수록된 이상언의 『학사행장초기』와 김시행의 『학사소차』를 검토한 결과, <학사삼곡>은 김응조가 56세가 되던 해인 1642년에 창작되었다. 『학사삼곡서』와의 연관성 속에서 <학사삼곡>을 분석한 결과, <학사삼곡>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학문과 연군과 우국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사대부 일반의 생애를 고려하여 각 편마다 개별 주제를 배치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롭게 발견된 연시조 <학사삼곡>을 통해 17세기 시조 문학사를 보다 다채롭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핵심어: 김응조, 학사삼곡, 학사집, 연시조, 17세기, 영남

## 1. 서론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사삼곡(鶴沙三曲)>은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1587~1667)가 지은 3편의 연시조다. 일찍이 <학사삼곡>의 작가 김응조는 국문시가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현보(李賢輔, 1467~1555)로 상징되는 분강가단의 풍류를 계승한 인물로 언급된 바 있다.<sup>1)</sup> 이후 그의 생애와 학문 세계를 검토하거나 한시 등의 문학 세계를 고찰한 연구가 있었지만<sup>2)</sup> 그가 창작한 <학사삼곡>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은 김응조가 창작한 <학사삼곡>의 실체가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응조의 문집인 『학사집(鶴沙集)』에는 <학사삼곡>의 창작 배경에 관한 「학사삼곡서(鶴沙三曲序)」가 실려 있다.<sup>3)</sup> 이를 통해 그가 창작한 시조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학사삼곡>의 자취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에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sup>4)</sup> 그런

1) “우선 현종 3(1662년) 9월 20일에 김응조(金應祖, 1587~1667)를 비롯하여 금성휘(琴聖徽)·김시온(金時暉)·이휘일(李徽逸)·김계광(金啓光) 등이 분강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당시의 풍류를 재현하려고 한 내용을 주목할 수 있다. 금성휘가 <어부사>를 노래하고, 김응조가 <등애일당(登愛日堂)>·<애일당정제익(愛日堂呈諸益)> 등의 시를 짓자, 김시온·이휘일·김계광 등이 차운을 했는데 모두 <어부사>를 중심으로 한 농암 이현보의 풍류를 환기하고 있다.” 최재남, 『분강가단의 풍류와 후대의 수용』,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2002; 계수록: 최재남,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보고서, 2003, 142~143면. 여기에서는 김시온을 ‘金時暉’으로 표기했으나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해 여러 자료를 참조한 결과 ‘金是樞’으로 정정해야 할 듯하다.

2) 김응조의 생애와 학문 세계를 검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태년, 『학사 김응조의 생애와 학문』,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김선주, 『학사 김응조의 삶과 시세계』,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8; 이해영, 『학사 김응조의 삶과 정신세계』, 『퇴계학』 20,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1. 특히 김선주는 김응조의 생애를 폭넓게 고찰하면서 관료로서의 생활과 은거 이후의 행적 등을 한시와 더불어 깊이 있게 살폈다.

3) 김응조, 『학사삼곡서』, 『학사집(鶴沙集)』 권5, 한국문집총간 91.

4) 김선주도 김응조의 저술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학사삼곡서>를 분석하면서 그가 국문시가 전통을 이어받아 <학사삼곡>을 지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김선주, 앞의 논문, 45면 참조.

데 학사 종택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자료<sup>5)</sup> 구체적으로 김응조의 지우 이상언(李尙彦, 1597~1671)의 『학사행장초기(鶴沙行狀草記)』<sup>6)</sup>와 김응조의 장자 김시행(金時行, 1613~1689)의 『학사소차(鶴沙疏筵)』에서 김응조의 <학사삼곡>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사후 그와 가까웠던 이들이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들 자료의 신빙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제자<sup>7)</sup>로 당대 영남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김응조가 남긴 <학사삼곡>은 새로운 연시조 작품인 동시에 그 서문에 해당하는 『학사삼곡서』가 함께 전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김응조의 시조 <학사삼곡>을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하면서 작자인 김응조의 생애와 그의 가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가 남긴 <학사삼곡>의 창작 시기와 문학적 특징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 II. 학사 김응조의 가문과 생애

김응조의 본관은 풍산(豊山)으로, 조선시대 풍산은 안동부의 속현이었다. 오늘날 풍산 김문은 안동과 봉화 등지에 종택을 두고 있지만 원래 이 집안은 대대로 한양에 연고를 두고 있었고 중앙 정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여러 번 부침을 겪었다. 여기에서는 풍산 김문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

5) 2010년 학사종택은 종택에서 보관해오던 고서, 고문서, 서화류 등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했고, 자료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응조의 <학사삼곡>이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다. 필자가 김응조의 <학사삼곡>의 실체를 알게 된 것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펴낸 국학자료 목록집을 통해서였다.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국학자료 목록집 11 풍산김씨 학사종택』, 한국국학진흥원, 2011.

6) 이 책은 본래 표제가 없지만 자료를 소개한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 목록집에 의거하여 『학사행장초기』라고 명명한다. 한국국학진흥원, 위의 책, 2011.

7) 『학사집』의 서문을 작성한 이상정(李象靖)은 『학사행장후지(鶴沙行狀後識)』에서 김응조가 유성룡·장현광·정경세 세 사람의 문하에서 종유(從遊)했지만 그 중 장현광에게서 가장 오래 배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종유의 차례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에 전말을 기록해 행장에서 빠진 점을 보충한다고 했다. 이상정, 『학사행장후지』, 『대산집(大山集)』 권 45, 한국문집총간 227.

고, 『학사집』에 수록된 연보 등을 참조하여 작자 김응조의 생애를 재구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학사삼곡>의 창작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보에 따르면 김응조의 집안은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송도에 거주하였으나 조선이 개국하자 7세조 김자순(金子純)이 한양 장의동으로 이주했고, 김응조의 고조부가 되는 김양진(金揚震)이 경주부윤이 되면서 안동의 풍산 오릉동과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sup>8)</sup> 구체적으로 1526년 김양진이 조부 김종석의 묘소에 묘비를 세우고 병을 이유로 관직을 사임하면서 오릉동에 들어왔다고 한다.<sup>9)</sup> 이전에도 김양진의 증조부인 김자순이 왕자의 난에 연루된 친형 김자량(金子良)의 사사(賜死)를 계기로 풍산 오릉동에 낙향했기에 오릉동 입향조를 김자순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피화(避禍)였기에 대부분의 후손들은 입향조를 김자순의 둘째 아들 김종석의 손자인 김양진으로 보고 그를 불천위(不遷位)로 모시고 있다.<sup>10)</sup>

입향조로 추송 받는 김양진은 1489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497년 별시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 저작에 임명된 이후 1503년 부수찬으로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묘호 추존을 반대하여 예천에 유배되었으나 중종반정 이후 형조좌랑에 기용되었다. 1513년 역학에 밝아 김안국·이행 등과 더불어 사유(師儒)로 뽑히기도 했다. 1517년 남곤의 추천으로 승지가, 1519년 기묘사화 이후 다시 남곤의 추천으로 형조참의로 발탁되었다가 대사간이 되었는데, 김안로의 아들로 중종의 부마가 된 김희가 사저의 건축을 사치스럽게 한다며 이를 비판했다가 권신 김안로의 미움을 사 배척을 받기도 했다. 김안로가 귀양을 간 이후 외직을 청원하여 경주부윤이 되었다가 병으로 사직하고 안동 풍산에 머물렀는데 이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sup>11)</sup> 이후 1529년 황해도 해주 관찰사로 임명되었고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공조참판, 충청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1535년 한양 장의동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sup>12)</sup>

8) 『학사선생연보(鶴沙先生年譜)』, 『학사집』, 한국문집총간 91.

9) 최홍식, 『오미마을 풍산김씨의 가학 전승과 학문활동』, 주승택 외, 『봉황처럼 날아오른 오미마을』, 민속원, 2007, 44면.

10) 주승택, 『조선전기 오미마을의 문학세계』, 위의 책, 141~142면.

11) 김태년, 앞의 논문, 61면; 김선주, 앞의 논문, 4~5면 참조.

김양진의 장남인 김의정(金義貞)은 한양 장의동에서 태어나 1516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526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에 올랐다. 1530년 세자시강원 사서가 되어 동궁이었던 인종에게 학문을 강론하여 인종의 신임을 받았으나 김안로와 갈등을 빚는 바람에 벼슬에서 물러나 풍산 오릉동에 낙향했다. 1545년 중부시 첨정이 되었으나 인종이 승하하자 자신을 국사로 대접했던 성을 보답하지 못함을 애통해 하며 병을 청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sup>13)</sup> 그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채 시문을 지으며 애통한 마음을 달래고 자신의 호를 잠암(潛庵)이라고 했다. 당시에 벼슬을 권하는 자가 ‘삼대신은 모두 옛 친구들로 한번 일어나면 청현직(淸顯職)에 올라 설 수 있는데, 그때는 여기에 뜻이 없는가’라고 하자 김의정은 문득 눈을 감고 손을 저으며 ‘천작(天爵)을 닦으며 인작(人爵)은 절로 오는 것인데, 어찌 꼭 벼슬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고, 벼슬을 권한 자도 그가 지키는 바가 확연함을 알고 감히 다시 말하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한다.<sup>14)</sup> 그의 아들 김농(金農)은 일생의 대부분을 오릉동에서 보냈다고 알려져 있다. 벼슬길에 나가지 말고 농사만 지으라는 부친의 유훈에 따라 벼슬을 단념하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유일로 천거되어 다섯 번이나 벼슬이 내렸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다가 가세가 어려워 준원전 참봉을, 그 뒤 여러 벼슬을 하다가 예천과 용궁의 현감을 거쳐 장례원 사의 등을 역임했다.<sup>15)</sup> 이들 부자가 풍산 오릉동에 은거했던 시기는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면서 을사사화와 양재역벽서사건으로 인한 정미사화가 일어난 혼란한 시기였다. 그의 집안은 김의정이 풍산 오릉동에서 은거하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sup>16)</sup> 김농이 아버지의 유훈에 따라 환로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1565년(명종 20) 김우평(金宇宏)과 더불어 승려 보우를 탄핵하는 상소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12) 최홍식, 앞의 책, 45~46면.

13) 최홍식, 위의 책, 46면.

14) “乙巳三月，遷宗簿寺僉正。七月，仁廟昇遐，先生驚號隕絕。稱病還鄉，杜門自廢，不與人相接，著詩文，以寓哀慟之懷，自號潛庵，又號幽敬堂。所親有勸之仕者曰，‘三大臣皆公舊要，一起立躋淸顯，公其無意於斯乎？’先生輒閉目搖手曰，‘修天爵，人爵自至，何必乃爾。’言者亦知其所守之確然不可奪，不敢復言。” 류태좌(柳台佐), 『행장』, 김의정, 『잠암선생일고(潛庵先生逸稿)』 권5, 한국문집총간 26.

15) 주승택, 앞의 책, 149면.

16) 주승택, 위의 책, 143~144면.

그가 사족으로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7)</sup>

김농의 아들인 김대현은 1553년에 태어나 1569년 17세에 전주이씨 이찬금의 딸과 혼인하여 9남 4녀를 두었다. 김대현은 1570년 별시 초시에 합격하고 1582년 생원시에 합격했다. 1591년 아버지 김농이 한양에서 타계하자 그는 아버지의 관을 풍산으로 옮겨 장례를 치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궤연을 모시고 태백산 아래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상례를 다했다. 1595년 이덕형과 김륙의 천거로 성현도 찰방이 되었다. 1598년 사도사 직장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대신 상의원 직장과 형군문집대랑청을 겸하면서 명나라 장수 형개(邢玠)를 대접한 공로로 1599년 예빈시 주부가 되었다. 그해 가을 영주로 돌아왔고, 1600년에는 이산서원 산장이 되어 활발한 강학 활동을 했다. 1601년 산음 현감이 되어서는 무너진 성전과 명륜당을 세웠고, 이듬해 산음의 임소에서 세상을 떠났다.<sup>18)</sup>

풍산 김씨 가문이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김대현의 아들 중 일찍이 세상을 떠난 팔남 김술조(金述祖)를 제외한 김봉조(金奉祖), 김영조(金榮祖), 김창조(金昌祖), 김경조(金慶祖), 김연조(金延祖), 김응조(金應祖), 김염조(金念祖), 김송조(金崇祖) 형제가 모두 생진시(生進試)에 합격하고 그 중에서 오형제가 문과에 급제하는 경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조는 이들 집안을 팔련오계(八蓮五桂)라고 칭찬하고 이들의 세거지인 오릉동(五陵洞)을 오미동(五美洞)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sup>19)</sup>

<학사삼곡>의 작자 김응조는 김대현의 여섯째 아들로 1587년 12월 26일 외가인 영주 봉향리에서 태어났다. 1593년 바로 위의 형인 김연조와 『소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10세 무렵에는 형제들과 함께 권두문, 권호신에게서 수학했다. 1607년에는 형 김연조와 함께 유성룡에게 찾아가 배움을

17) 김농의 문집은 『화남유고(華南遺稿)』 1책이 남아 있다. 그런데 12책짜리 풍산 김씨 집안의 문집인 『석릉세고(石陵世稿)』에도 김농의 『화남공유묵(華南公遺墨)』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오랜 시간 동안 문중에서 보관하다가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었다. 풍산김씨 허백당 문중의 자료들을 정리한 자료집의 해제에 따르면 김농의 상소일기로 추정되는 『청참보우소일기(請斬普雨疏日記)』에서 김농은 김우평을 소두로 하여 승려 보우를 탄핵하는 상소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을 이 일기에 일자별로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이 자료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상소 일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상소 일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 편, 『오미동 풍산김씨 허백당 문중』, 한국국학진흥원, 2007, 34면.

18) 김봉조, 『가장(家狀)』, 김대현, 『유연당선생문집(悠然堂先生文集)』 권4, 한국문집총간 속7. 19) 최홍식, 앞의 책, 51면; 주승택, 앞의 책, 157면.

청했다. 그러나 그 해 유성룡이 서거하는 바람에 그의 문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의 백형 김봉조가 유성룡과 정경세의 문인이었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1613년 김응조는 경상좌도 감시에 수석 합격하고 생원회시에 2등으로 합격했으나 사마시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해에 이이첨 등 대북파에 의해 계속옥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김응조는 영남의 선비들을 대신해 이이첨의 주살을 요청하는 상소문을 지었을 정도로 대북 정권에 비판적이었다. 더욱이 같은 해 승문원 정자로 있던 형 김연조가 요절하자 벼슬에 대한 뜻도 함께 접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행장에서 이 시기부터 인조반정 이전까지의 행적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sup>20)</sup> 연보에 따르면 이 시기에 장현광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성리학을 전심으로 공부했고 벼슬에 대한 뜻이 없었다고 한다.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장현광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된 시점도 이때부터일 것이라고 추측된다.<sup>21)</sup>

1623년 인조반정 이후 명나라 희종 황제의 등극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5월 알성시에 급제하면서 승문원 부정자로 본격적인 사환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승정원 주서 및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했고, 그 다음 해에는 병조좌랑으로 승진했다. 1626년 백형 김봉조와 함께 계시던 어머니가 백형의 임소인 익산에서 돌아가시자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시력을 잃을 정도로 건강이 상했다고 한다. 상을 마친 이후 1628년 병조정랑이 되었다가 이듬해 성균관 직장이 되었다. 1630년 병조정랑에 복직했는데 백형인 김봉조가 죽자 그의 영구를 모시고 귀향하여 장례를 주관했고 행장을 직접 찬했다. 1631년 전라도 흥덕현감이 되었고, 1632년 막내 동생 김승조가 죽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갔다. 어머니를 비롯해 형제들의 연이은 죽음이 낙향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한다.

1633년 9월 선산부사가 되었다. 선산은 그의 스승 장현광이 사는 인동과 인접한 곳이기에 여유가 날 때마다 장현광과 자주 왕래하며 지냈다. 또한 선산에는 김중직을 비롯한 선현의 유적이 많아 이들의 묘소를 찾아다니며 제문을 지어 바치고 학덕을 추모했다. 그의 문집에 이들의 제문이 수록된

20) 안병길, 『팔련오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형제들 -김봉조, 김영조, 김응조 형제의 삶』, 위의 책, 104~105면 참조.

21) 장현광은 자신의 제자 중에서 학문의 정진과 성취에 따라 10명을 추린 바 있는데, 김응조도 그 여문십현(旅門十賢) 중 한 사람이다. 김태년, 앞의 논문, 70~71면 참조.

것도 모두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1634년에는 벼슬을 버리고 귀향해 남애정사(南厓精舍)를 짓고 청향지(清香池)라는 못을 판 뒤 연꽃을 심어 두고 지냈다. 이는 모두 중국 북송의 유학자 주렴계(周濂溪)를 본받고자 한 것이다. 1635년 9월 사헌부 지평과 장령을 지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형 김영조와 남한산성에 가서 인조를 호종하려고 했으나, 1637년 임금이 항복하고 한양으로 돌아오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사환에는 뜻이 없었고 남애정사에 머무르며 지냈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한산성에서 강화한 일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청의 연호를 쓰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한양에 있었지만 장현광이 죽자 그가 머물던 입암(立巖)에 내려와 장례를 마칠 때까지 호상을 했다. 1638년 정월, 장령으로 불려 올라간 뒤에 종부시정, 사헌부 헌납 등을 차례로 지냈다. 다음 해에는 사예와 장령 등의 벼슬을 받았으나 모두 나가지 않고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 1640년 정월부터 장령과 헌납 등의 벼슬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다가 7월에야 헌납과 사예를 지냈다. 10월에는 외직인 인동부사가 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장현광의 묘를 찾아가 제문을 지어 바치고 동문들과 『여헌집(旅軒集)』을 발간하기 위한 교정 작업에 착수했다.

1642년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영주와 안동의 경계에 있는 사천(沙川) 북쪽 언덕에 한 채의 집을 얻어 학사정사(鶴沙精舍)라고 이름을 짓고, 가족들과 머무르면서 친한 이들과 풍류를 즐겼다. 여러 명사들과 창화한 시를 묶은 『학사잡영(鶴沙雜詠)』을 펴내고, 그곳의 승경에 관한 『학사사승기(鶴沙四勝記)』를 지었다. 이때 연시조 <학사삼곡>도 함께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1643년 정월, 다시 장령이 되어 여러 벼슬을 역임하면서 유성룡을 이장할 때 제문을 지었다. 1645년 3월, 이황, 유성룡, 정구, 장현광의 문집에서 관혼상제에 관한 예설을 모아 『사례문답(四禮問答)』을 펴냈다.<sup>23)</sup> 1647년에는 시강원 보덕으로 동궁이던 효종을 보필했고, 이후에도 사헌부와 사간원

22) 김응조의 행장을 쓴 이광정(李光庭)에 따르면 김응조는 정사를 매입한 뒤에 담장을 고치면서 꽃,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자호(自號)를 학사옹(鶴沙翁)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광정, 『행장』, 『학사집』 부록, 한국문집총간 91.

23) 김태년은 김응조의 활동과 관련해 가례에 대한 영남 퇴계학파의 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앞의 논문, 71면 참조.

의 여러 관직을 지냈다.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등극한 지 2년째인 1651년에는 다시 응교가 되었다가 사간으로 옮기면서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전에 그가 제안했던 삼분모미(三分耗米)의 폐단을 밝히고 그 제도의 철폐를 상주했다. 효종도 이 제도의 폐지를 약속했다.<sup>24)</sup> 다음날 그는 통정대부로 승진하면서 승정원 도부승지가 되었으나 사직을 요청했고, 8월 인정전의 주강이 되었다가 체직되어 고향에 돌아왔다.

1651년 10월 밀양부사가 되었다가 이듬해 2월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왔다. 1653년에는 조상들의 사적과 유작을 정리한 『추원록(追遠錄)』을 완성했다. 그해 7월 담양부사가 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 1655년 그는 이황의 제자인 김룡이 남긴 『삼서강록(三書講錄)』의 발문을 지었다. 1657년 정구의 묘지명과 박영의 문집 발문을 지었다. 1658년 11월 형조참의로 불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1659년 4월 공조참의로 임명되어 서울에 가던 중 효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즉시 가서 곡을 하고, 그해 10월 효종의 만사를 지었다. 이후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와 있으면서 인근 고을인 영주와 예안의 선비들과 학사정, 수락대, 애일당 등지에서 풍류를 즐겼다.

1662년 11월 사간원의 대사간에 체수되었으나 고령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1664년 그에게 갑자기 체포령이 떨어졌다. 담양에서의 환곡미 품질이 너무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되어 관장을 지낸 10여인이 체포되었고, 예전에 담양부사를 역임했던 그도 함께 체포되었다. 하지만 예조판서 홍중보가 세 임금을 경연에서 모신 신하이기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여 직첩을 환수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다. 1664년 4월에는 조목의 문집 발문을, 1665년에는 이덕홍이 이황의 언행을 기록한 『계산기선록(溪山記善錄)』의 발문을 지었다. 이듬해인 1666년 정운이 조목의 신도비명을 지으면서 조목이 유성룡에게 보낸 편지에 ‘주화오국(主和誤國)’이라고 한 말을 실은 것을 보고, 이를 변호하기 위하여 『서애선생변무록(西厓先生辨誣錄)』을 짓기도 했다. 11월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종2품에 오르게 하는 명이 내려졌다. 1667년 2월에는 동지중추부사가, 10월에는 한성부 우윤이 되었으나 삼분모미제의 폐해를 비롯한 국정 운영에 관한 상소를 올리며 벼슬을 사양했다. 그러고는 그해 12월 1일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4) 『효종실록』 권3, 효종 1년 4월 5일자 기사.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김응조의 선조들은 본래 한양에 세거했으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한양과 풍산을 오갔고 점차 안동과 인근 지역에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김응조는 자연스럽게 영남 남인의 학맥을 계승할 수 있었다.<sup>25)</sup> 그리고 그는 인조반정 이후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을 무대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했다. 특히 인조대 이후 영남의 사류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하지 못하고 향촌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sup>26)</sup> 인조·효종·현종 삼대에 걸쳐 내외직을 비롯해 여러 관직을 역임한 사실은 김응조는 물론 그가 남긴 연시조 <학사삼곡>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급제하고도 광해군 시기에 출사를 하지 않다가 인조반정 이후 출사하면서 청요직을 비롯해 여러 관직을 역임한 것은 관료로서의 모습을, 스승이었던 장현광이 죽자 그의 문집인 『여헌집』을 정리하고 이황·유성룡·정구·장현광의 문집에서 예설을 모아 『사례문답』을 펴내고 이황 및 유성룡과 관련된 저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학자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면모는 <학사삼곡>에서도 확인되는 바 <학사삼곡>의 창작 시기와 문학적 특징을 검토한 다음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 III. <학사삼곡>의 창작 시기와 문학적 특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응조의 지우 이상언과 장자 김시행은 우리말 노래인 <학사삼곡>을 김응조의 소중한 유산으로 생각하고 기록으로 남겼지만 그의 문집인 『학사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학사삼곡>은 수록되지 못했다. 대신 <학사삼곡>의 창작 배경에 관한 『학사삼곡서』만 『학사집』에

25) 심사 의견 중에서 영남 남인 계열 작가들이 구축한 시가 전통의 계보 속에서 김응조의 <학사삼곡>이 갖는 문학적 위상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문제는 퇴계 학맥 나아가 영남 가단의 시조 전통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후에 보다 자세한 논의를 펴도록 하겠다.

26) 우인수, 『여헌 장현광과 선산 지역의 퇴계학맥』,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2004, 133면.

수록되었다. 『학사삼곡서』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사삼곡은 학사 노인이 스스로 지은 노래이다. 제1곡은 도를 배우는 성실을 서술했고, 제2곡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성을 폈으며, 제3곡은 시대를 아파하는 탄식을 드러내었다. 대체로 노인은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며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부친과 스승께서 가르쳐주고 권면해 준 뜻과 하늘과 땅이 덮어주고 길러준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슬프고 근심스러운 뜻이 줄곧 답답하게 막혀 있어서 풀리지 않으니 이것이 노래를 짓게 된 까닭이다. 처음에 도를 배우고 중간에 임금을 그리워하고 마지막에 시대를 아파하니, 우리들이 하는 사업의 차례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 산수의 즐거움을 말하지 않은 것은 뜻은 있으나 마음이 미칠 겨를이 없어서이다. 시문으로 뜻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어로 엮어 가곡을 만든 것은 노인이 글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훗날에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마음을 헤아려 나의 참람함을 용서하길 바란다.<sup>27)</sup>

여기에서는 <학사삼곡>을 구성하는 각 작품의 주제와 창작 동기를 함께 기술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학사삼곡>의 창작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창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학사삼곡>의 창작 시기에 관한 단서는 <학사삼곡>이 수록된 이상언의 『학사행장초기』와 김시행의 『학사소차』라는 두 자료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먼저 김응조의 지우 이상언이 편찬한 『학사행장초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671년에<sup>28)</sup> 이상언이 작성한 『가선대부한성부우윤 학사김선생행장초기(嘉善大夫漢城府右尹 鶴沙金先生行狀草記)』<sup>29)</sup>, <학사삼곡>, 김응조가 77세가 되던 1663년에 작성한 『자명문(自銘文)』, 1668년에 이상언이 작성한 『제문』, <만시(挽詩)><sup>30)</sup> 등. 이상언이 김응조의 유의미한 사적

27) “鶴沙三曲者，鶴沙老人所自作歌也。其第一曲則聊以紓學道之誠也。其第二曲則聊以申戀闕之忱也。其第三曲則聊以發傷時之歎也。蓋老人目盲矣耳聾矣死亡無日矣，無以酬父詔師勉之意天覆地育之恩，而悲愁一味鬱結而未解，此歌之所以作也。始焉學道，中焉戀闕，終焉傷時，吾人事業，次第然也。其不言山水之樂者，志有在而不暇及也。不以詩文見意而綴俚語爲歌曲者，老人不文也。後之覽者，必有以諒余心而恕余僭也。” 김응조, 『학사삼곡서』, 『학사집』 권5.

28) 한국국학진흥원의 국학자료 목록집에서는 『학사행장초기』의 저술 시기를 1668년이라고 했지만 이상언은 『가선대부한성부우윤 학사김선생행장초기』를 마무리하면서 신해오월(辛亥五月) 곧 1671년 5월에 찬했다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11, 50면.

29) 편의를 위해 이상언의 『가선대부한성부우윤 학사김선생행장초기』는 『학사김선생행장초기』로 약칭하겠다.

들을 직접 선발해서 정리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들 간의 정확한 인과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김응조의 장자 김시행이 편찬한 『학사소차』는 표제가 『학사소차(鶴沙疏筭)』이지만 내제는 「가선대부한성부우윤 부군유사(嘉善大夫漢城府右尹 府君遺事)」<sup>31)</sup>라고 되어 있다. ‘부군유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학사소차』가 장자인 김시행이 아버지 김응조의 일생을 직접 정리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차(疏筭)라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김응조가 생전에 작성한 상소와 차자를 특별히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김시행은 「부군유사」를 기유년(己酉年) 즉 1669년에 작성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김응조가 죽고 학가산에 묻힌 바로 이듬해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군유사」 곧 『학사소차』는 김응조 사후 그와 관련된 저술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747년에 김응조의 행장을 지은 이광정(李光庭)은 김시행이 행장과 소차를 편찬하여 조경(趙綱, 1586~1669)에게 묘지명을 청했으나 조경이 노병으로 죽으면서 완성하지 못했고, 증손자 김계(金价)가 유집(遺集)을 교정하면서 자신에게 행장을 부탁했다고 자신이 김응조의 행장을 지은 까닭을 밝혔다. 그리고 행장에서 “용주 조경이 선생의 집안에 소장된 소차를 보고 그 지면에 제목을 붙이기를 ‘일찍이 듣건대, 이 노인의 십년 독서가 여기에서 그 공력이 드러났다[然趙龍洲綱見先生家狀疏筭, 題其面曰, 嘗聞此老十年讀書, 其功於此著矣]”<sup>32)</sup>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경과 이광정이 언급한 소차는 장자인 김시행이 찬술한 『학사소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sup>33)</sup>

자료를 작성한 이들의 관계와 작성 시기를 고려할 때 <학사삼곡>의 창작 시기는 장자인 김시행이 저술한 『학사소차』를 중심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상언의 『학사행장초기』가 김응조의 행적을 다룬 「학사김선생행장초기」와 그의 시조 작품인 <학사삼곡>을 분리하여 수록한 데 비해 김

30) 『학사집』에는 부록의 만사(挽詞)로 수록되어 있다.

31) 이상언의 「학사김선생행장초기」와 마찬가지로 김시행의 「가선대부한성부우윤 부군유사」도 「부군유사」로 약칭하여 사용하겠다.

32) 이광정, 「행장」, 『학사집』 부록, 한국문집총간 91.

33) 김시행이 편찬한 『학사소차』 표지에도 희미하지만 “嘗聞此老十年書於此其功著”라고 적혀 있다. 표지의 내용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시행의 『학사소차』는 <학사삼곡>을 본문에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학사소차』의 문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사삼곡>의 창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사진] 김시행의 『학사소차』 소재 <학사삼곡> 전문과 『학사삼곡서』의 일부본

김시행의 『학사소차』에서 <학사삼곡>이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임오년(壬午年) 즉 1642년에 있었던 김응조의 행적을 말하는 부분에서이다. 여기에 따르면 1642년 벼슬에서 물러난 김응조는 성품이 산수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해서 일찍이 사천 북쪽 언덕에 가재로 집 한 채를 산 다음에 학사정사(鶴沙精舍)라고 이름을 짓고, 이곳에서 거처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여 훗날 자적할 곳으로 삼고자 했다고 한다. 더욱이 김상헌<sup>34)</sup>, 이경석, 채유후, 이민영, 조빈, 강백년, 이원정, 안헌징 등을 비롯해 인근의 여러 장로들과 시를 화답하며 『학사잡영(鶴沙雜詠)』<sup>35)</sup>을 남겼다고 한다.<sup>36)</sup>

34) 김시행은 『학사소차』에서 특별히 김상헌의 화답시를 소개했다. 김상헌의 『청음집(淸陰集)』에는 ‘卽’이 ‘祇’로 바뀌어 수록되어 있다. 김상헌, “曾記南厓約共棲, 近聞新築更堪携. 祇今老病休來往, 詩句聊分一首題.” 『기제김효정학산신거(寄題金孝徵鶴山新居)』, 『청음집』 권3.

35) 여기에서 말한 『학사잡영』은 현재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김응조의 친필로 된 『학사정기(鶴沙亭記)』와 『학사사승기(鶴沙四勝記)』를 비롯해 아들 김시행이 옮긴 이경석, 김상

『학사소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서술한 다음 “일찍이 <학사삼곡>을 지어 심회를 풀었다. 그 첫 번째를 말하면”<sup>37)</sup>이라고 하면서 <학사삼곡>과 『학사삼곡서』의 전문을 제시하고, 『학사삼곡서』가 끝나자 곧바로 이듬해인 1643년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김시행의 『학사소차』에서 <학사삼곡>과 『학사삼곡서』를 1642년의 행적에 포함시킨 것은 이상언의 『학사김선생행장초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사정사를 짓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던 1642년 즈음에 <학사삼곡>을 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사삼곡>의 서문에 해당하는 『학사삼곡서』에서 김응조는 “제1곡은 도를 배우는 성실을 서술했고, 제2곡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성을 썼으며, 제3곡은 시대를 아파하는 탄식을 드러내었다[其第一曲則聊以紓學道之誠也. 其第二曲則聊以申戀闕之忱也. 其第三曲則聊以發傷時之歎也]”라고 하면서도 “처음에 도를 배우고 중간에 임금을 그리워하고 마지막에 시대를 아파하니, 우리들이 하는 사업의 차례가 그러하기 때문이다[始焉學道, 中焉戀闕, 終焉傷時, 吾人事業, 次第然也]”라고 <학사삼곡>의 주제 의식과 구성 원리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사삼곡>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학문과 연군과 우국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사대부 일반의 생애를 고려하여 각 편마다 개별 주제를 배치한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연시조로서 <학사삼곡>의 문학적 특징을 검토하는 일은 이 같은 『학사삼곡서』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헌, 이민구, 채유후, 강백년 등의 한시가 수록된 서첩만이 전한다.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11, 169면.

36) “壬午罷歸. 性愛住山水, 曾於沙川北阜, 以家財購得一屋子, 所謂鶴沙精舍也. 府君每謁, 上流山水, 最勝於此, 處甚樂之. 乃疏蒼蔚補墻垣, 益樹以花竹松柏, 以爲早晚投絨徜徉之計, 至是或携家往棲或招意中. 人留連觸詠以自遣, 有記文與壁上韻, 白軒李相公, 蔡判書裕後, 李參判敏永, 趙輔德贊, 姜參判栢年, 李承旨元禎, 安參議獻徵, 具有和詩, 清陰金相公又有寄題曰, ‘曾記南厓約共棲, 近聞新築更堪携, 卽今老病休來往, 詩句聊分一首題’, 隣近諸丈老亦多有和之者, 名之曰鶴沙雜詠. 精舍南崖臨川構草屋二間扁之曰, 不夜齋. 以其窗外沙水 縈統皓皓曖曖, 雖夜如晝故也. 亦有記文與壁上韻.” 김시행, 『부군유사』, 『학사소차』. 이상의 내용은 ‘府君’이 ‘公’으로 변개된 채 이상언의 『학사김선생행장초기』에도 공히 수록되어 있다.

37) “嘗作鶴沙三曲以寓懷, 其一曰”, 김시행, 위의 글.

其一曰

高山을 바라보고 景行을 좇자 네니  
 히 더 저른 날에 갈 길히 멀고 머다  
 行裝이 하 초 〃 ㅎ니 갈동말동 ㅎ여라

제1곡에서 화자는 고산을 바라보고 경행을 찾아 가고자 한다. 고산과 경행은 『시경』 거할편(車輦篇)의 “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큰 길을 걸어간다 [高山仰止 景行行止]”에서 유래한 시어로 단순히 높은 산과 큰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큰 덕행을 의미한다. 『학사삼곡서』에서 ‘제1곡은 도를 배우는 성실을 서술했다[其第一曲則聊以紓學道之誠也]’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도는 고인들이 힘써 걸어간 길이자 자신도 따라가야 하는 길, 곧 진리의 길을 의미한다.<sup>38)</sup> 김응조는 『학사삼곡서』에서 진리의 길과 그 길을 걷는 데 요구되는 성실함을 함께 강조했다. 앞서 살펴본 김응조의 생애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응조는 7살의 어린 나이부터 『소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10살에는 형들과 함께 인근의 유명한 학자였던 권두문과 권호신에게 수학했으며 20살에는 형과 함께 유성룡을 배알했다. 24살에는 도산서원을 방문하고 서원에 머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황의 문하에서 직접 배우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기도 했다. 이후 과거에 급제했지만 광해군 시절에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채 장현광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성리학을 전심으로 공부했다. 인조반정 이후 벼슬에 나아갔는데 1633년 선산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스승 장현광과 자주 왕래했으며 경내에 있는 길재, 김주, 하위지, 이맹전, 김종직, 정봉, 박영을 비롯한 일곱 선생의 묘소를 찾아다니며 제문을 바치기도 했다.<sup>39)</sup>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선현의 묘소를 찾은 것은 고산과 경행으로 상징되는 선인들을 기리고 따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작품에서 고산과 경행을 향한 화자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하다. 작품에 제시된 것처럼, 날은 벌써 저물었는데 갈 길은 아직도 멀기 때문이다. 자신의 뜻과는 다른 상황을 마주한 화자는 무거운 마음에 절로 탄식할 수밖에 없다. 화자

38) 시조에서 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찍이 이황의 <도산십이곡>에서 찾을 수 있다.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 못 뵈 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퐁 잇너 녀던 길 알퐁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39) 『학사선생연보』, 『학사집』, 한국문집총간 91.

의 탄식은 몸은 늙고 쇠약한데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뜻하는, 이른바 일모도원(日暮途遠)<sup>40</sup>의 탄식이다. 먼 길을 떠나기 위해 준비한 행장도 초초하기 짝이 없다. 중장에서 ‘멀다’를 반복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고민과 부담감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특히나 마지막에서 ‘갈동말동 흐여라’라며 자신의 행보를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제1곡은 목적을 향한 당위성이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도중에 느끼는 고민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其二曰

白岳된 재 아래 五雲이 기픈 고대  
丹心이 나뻑 되야 밤등만 느라가니  
님 계신 蓬萊宮闕이 눈에 암 〃 흐여라

제2곡의 서두에서 제시된 백악은 한양의 북악산을, 이어지는 오운 곧 오색채운(五色彩雲)은 임금의 거처를 의미한다.<sup>41</sup> 여기에서 화자가 상상하는 공간은 임금이 머물고 있는 한양이다. 앞서 김응조의 생애에서 확인한 것처럼 <학사삼곡>의 작자 김응조는 인조반정 이후 본격적으로 환로에 나아가 젊은 시절부터 청요직에 해당하는 사헌부, 사간원 등에서 관직 생활을 했으며 선산부사, 인동부사 등 여러 외직을 두루 역임했다. 비록 <학사삼곡>을 창작한 이후이지만 훗날 그는 시강원 보덕을 역임하면서 동궁 시절의 효종을 보필하기도 했다. 과거 급제 이후 다양한 관직 생활의 경험은 김응조로 하여금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학사삼곡>에서 각별하게 표현하게 한 심리적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 결과 <사미인곡(思美人曲)>의 화자가 범나비가 되어 임을 좇으려 했던 것처럼<sup>42</sup> 제2곡의 화자도 나비로 몸을 바꾸어

40)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 평왕(平王)이 오자서(伍子胥)의 아버지와 형을 무고하게 죽이자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오나라로 망명하여 재상이 되어 초나라를 정벌하고 아버지의 원수 평왕의 묘를 파헤쳐 시체에 3백 개의 곤장을 가하였다. 옛 벗 신포서(申包胥)가 사람을 보내 이를 비난하자 오자서는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어,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吾日暮途遠, 故倒行而逆施之]”라고 변명한 고사가 있다. 『사기』 권66,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

41) 심사 의견 중 “白岳된 재”의 “된재”가 고개의 이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지명 사전들을 조사했으나 안타깝게도 여기에 부합하는 지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임을 만나고자 한다. 캄캄한 밤하늘에 상상 속 공간인 봉래산으로 날아가 드높은 궁궐에 있는 임을 만나고 싶다는 화자의 진술은 화자와 임이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화자가 임과의 만남을 애타게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화자는 ‘임 계신 봉래궁궐이 눈에 암암하다’며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제2곡은 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으로 상징되는 임금을 만나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강렬히 표출된 작품이다. 한편, 『학사삼곡서』에서 ‘제2곡이 임금을 그리는 정성을 펼쳤다[其第二曲則聊以申戀闕之忱也]’고 한 점이나 실제 작품 분석을 통해 제2곡의 주제가 연군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김응조는 『학사삼곡서』에서 연군을 표현하매 연궐(戀闕)이라는 환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제2곡에서 ‘백악(白岳)’과 ‘봉래궁궐(蓬萊宮闕)’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 것도 『학사삼곡서』에서 사용된 연궐(戀闕)이라는 환유적 표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其三曰

龍泉을 빗기 촛고 絶影섬을 구버보니

扶桑 一點 塵이 눈 아래 비건 만든

鏡中에 霜雪이 하니 시름 계워 흐노라

마지막 제3곡에서 화자는 전설의 보검인 용천검(龍泉劍)<sup>43</sup>을 비껴 차고 절영섬<sup>44</sup>을 굽어보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어지는 중장에서 화자의 시선은 절영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상(扶桑) 즉 일본을 향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상을 ‘일점 진(一點塵)’ 즉 한 점 티끌에 비유한 것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1607년 국교를 재개한 이

42) “출하리 석어디어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트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뜨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츼려 흐노라” 정철, <사미인곡>.

43)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의 명검으로, 남북조시대 진나라의 뇌환(雷煥)이 예장(豫章)의 풍성(豊城) 땅속에서 얻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원래는 용연검(龍淵劍)으로 불렸으나 당(唐)나라 고조의 휘(諱)인 ‘연(淵)’을 피하여 용천(龍泉)이라 하였다. 『진서(晉書)』 권36, 장화열전(張華列傳).

44) 제3곡의 ‘絶影섬’은 절영도(絶影島)의 이칭으로 보이는데 절영도는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현재 영도(影島)를 의미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경상도 동래현.

후 회담검쇄환사를 세 차례 파견하다가 1636년부터 통신사(通信使)로 명칭을 고쳐 파견하면서 외교관계를 유지했지만, 병자호란 이후 일본은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다.<sup>45)</sup> 김응조가 <학사삼곡>을 지은 이때까지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일본은 여전히 부정적인 대상이었다. 초장에서 화자가 전설의 보검인 용천검을 찾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드러난다. 화자는 경계의 눈빛으로 일본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종장에서 거울에 흰머리가 보인다고 하는 화자의 탄식처럼 화자는 어느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김응조는 『학사삼곡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학사 노인으로 칭하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곡의 주제를 ‘시대를 아파하는 탄식을 드러냈다[其第三曲則聊以發傷時之歎也]’고 설명했는데 <학사삼곡> 제3곡에는 노년이 되어 시름겨워하는 작자 김응조의 처지가 투영되어 있다.

<학사삼곡>의 서문인 『학사삼곡서』와의 연관성 속에서 <학사삼곡>을 간략히 검토한 결과, 김응조가 56세가 되던 1642년에 창작한 연시조 <학사삼곡>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학문과 연군과 우국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사대부 일반의 생애를 고려하여 각 편마다 개별 주제를 배치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학사삼곡>을 구성하는 개별 작품들의 주제가 다르지만 그것을 사대부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 각 편에 배치한 것은 연시조 <학사삼곡>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 IV. 결론

본고는 김응조가 1642년에 창작한 시조 <학사삼곡>을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김응조는 영남 출신으로는 드물게 인조반정 이후 인조·효종·현종 삼대에 걸쳐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장현광의 대표적인 제자로 영남 남인의 학맥을 계승한 인물이다. 관료와 학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체의식은 <학사삼곡>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특히

45) 신로사, 『1643년 통신사행과 조경의 일본 인식에 관한 소고』,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74~75면 참조.

조선시대 사대부라면 누구나 고민했을 학문과 연군과 우국을 주제로 하면 서도 그것을 생애 주기에 따라 각 편에 배치한 것은 <학사삼곡>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가 <학사삼곡>을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되었기에 <학사삼곡>의 문학적 성격을 17세기 영남에서 활동한 다른 이들의 시조와 비교하거나 삼곡(三曲)이라는 형식상의 특징을 여타의 연시조 작품들과 고찰하는 작업은 시도하지 못했다. 이들 문제는 김응조와 그의 연시조 <학사삼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남 지역의 시조 작가들과 그들의 연시조 작품 나아가 17세기 시조 문학사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이들 문제를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시행(金時行), 『학사소차(鶴沙疏筭)』,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이상언(李尙彦), 『학사행장초기(鶴沙行狀草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 김대현, 『유연당선생문집(悠然堂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속7.  
김상현, 『청음집(淸陰集)』, 한국문집총간 77.  
김응조, 『학사집(鶴沙集)』, 한국문집총간 91.  
김의정, 『잠암선생일고(潛庵先生逸稿)』, 한국문집총간 26.  
이상정, 『대산집(大山集)』, 한국문집총간 227.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 2. 단행본

- 안병길, 『팔련오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형제들 - 김봉조, 김영조, 김응조 형제의 삶』, 주승택 외, 『봉황처럼 날아오른 오미마을』, 민속원, 2007.  
우인수, 『여현 장현광과 선산 지역의 퇴계학맥』,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서, 2004.  
주승택, 『조선전기 오미마을의 문학세계』, 주승택 외, 『봉황처럼 날아오른 오미마을』, 민속원, 2007.  
최재남, 『분강가단의 풍류와 후대의 수용』,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2002; 재수록: 최재남,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보고서, 2003.  
최홍식, 『오미마을 풍산김씨의 가학 전승과 학문활동』, 주승택 외, 『봉황처럼 날아오른 오미마을』, 민속원, 2007.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국학자료 목록집 7 오미동 풍산김씨 허백당 문중』, 한국국학진흥원, 2007.  
\_\_\_\_\_,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국학자료 목록집 11 풍산김씨 학사종택』, 한국국학진흥원, 2011.

### 3. 논문

- 김전주, 『학사 김응조의 삶과 시세계』,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8.  
김태년, 『학사 김응조의 생애와 학문』,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57~

90면.

신로사, 『1643년 통신사행과 조경의 일본 인식에 관한 소고』,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71~99면.

이해영, 『학사 김응조의 삶과 정신세계』, 『퇴계학』 20,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1, 155~183면.

## Haksa Kim Eung-jo's Yeonsijo *HaksaSamgok*

Jung, Ki-sun

This article was written to formally report on Haksa Kim Eung-jo's Yeonsijo *HaksaSamgok* to academia. Through the introduction in his *Haksajip*,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it was presumed that the Sijo he created existed, but the work was not found, so further discussion was not conducted. Recently, he was able to newly confirm his Yeonsijo *Haksa Samgok* in the materials that his descendants donated to th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s a result of examining his family and life, Kim Eung-jo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Yeongnam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He was active as a politician and scholar. Through the records left by his friend and son, it was confirmed that *HaksaSamgok* was created in 1642, when Kim Eung-jo was 56 years ol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Yeonsijo *HaksaSamgok* in relation to the *HaksaSamgok* seo, the *HaksaSamgok* is based on the themes of study, loyalty, and patriotism, which were the core of the identity of the nobles in the Joseon Dynasty. It could be seen that each subject was arranged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new Yeonsijo *HaksaSamgok*, it will be possible to explai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Sijo in a more colorful way.

Keywords: Kim Eung-jo(金應祖), *HaksaSamgok*(鶴沙三曲), *Haksajip*(鶴沙集),  
Yeonsijo(聯詩調), 17th century, Yeongnam(嶺南)

접수일자: 2022. 3. 31.  
심사기간: 2022. 4. 1.~2022. 5. 10.  
게재결정: 2022. 5. 10.